



世界家禽學會 韓國支部 제 2 회 세미나 盛了

지난 5월 17日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의 제 2회 세미나가 선진지 견학과 아울러 오전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었다. 당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이날 세미나는 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회원의 공장회의실에서 열렸는데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재근 지부장은 “세계가금학회 한국 지부가 나날이 내실을 다지고 활동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은 모든 회원들의 참여와 의욕이 높아짐으로 인한것”이라고 밝히고 “양계 업계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도 대한양계 협회와의 긴밀한 유대하에 전 회원이 앞장서 줄것”을 당부하였다. 세미나는 먼저 「닭의 인공수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이재근(고려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양계산물 가격안정 대책과 생산자의 역할에 관한 박영인(미사로 곡물협회 한국지부) 지부장의 발표와 이에 대한 질의응답으로서 진행 되었다.

오후 부터는 선진지 견학으로서 한국화이자공장, 한국바이엘화학, 천호부화장의 시설 견학이 있었으며 동사들에 대해 양계 발전에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해 준 노고를 치하하고 산학협동이 다른 차원에서 결실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각각 기념패를 증정하였다.

이날 참석한 분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WPSA-K 세미나 및 선진지 견학 참가자

명단

1. 홍성사료 오재정

2. 고려대학교
3. 현대양계
4. 고창양계
5. 고창양계
6. 고창양계
7. 고창양계
8. 삼화농원
9. 한협
10. 가축위생연구소
11. 국립종축장
12. 경상대학
13. 충남대학
14. 가축위생연구소
15. 가축위생연구소
16. 가축위생연구소
17. 경북대학교
18. 서울대학교
19. 천호부화장
20. 서울대학교
21. 바이엘화학
22. 유니화학
23. 양계협회
24. 양계협회
25. 양계협회
26. 소신종계원
27. 가축위생연구소
28. 가축위생연구소
29. 제일양계기구
제 작 소
30. 고려대학교
31. 고려대학교
32. 고려대학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재근 | 김중곤 | 신홍성 | 홍영권 | 나길주 | 배성황 | 이병호 | 박근식 | 박상문 | 하정기 | 한성욱 | 김선중 | 이영욱 | 김순재 | 장윤환 | 박영일 | 오경록 | 오봉국 | 이영상 | 윤병성 | 노영한 | 안남신 | 권성만 | 이영일 | 유일웅 | 주한수 | 박호일 | 송해범 | 홍동식 | 이상호 |
|-----|-----|-----|-----|-----|-----|-----|-----|-----|-----|-----|-----|-----|-----|-----|-----|-----|-----|-----|-----|-----|-----|-----|-----|-----|-----|-----|-----|-----|-----|

WPSA-K 연구논문초록

韓 仁 圭

(서울대 농과대학 교수)

부로일러生産에 있어서 점등의 효과

부로일러 生産에 있어서 이상적인 점등은 최소의 飼料攝取量과 전력소비로서 최대의 成長을 이루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24時間 계속 점등하여 주게 되면 사료섭취량이 增加하게 되어 成長속도가 빠른것으로 나타났으나 하루 일정시간 소등하여 주는것에 비해 飼料效率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두가지 양상을 效率的으로 고려하는것이 가장 이상적인 점등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부로일러는 동일한 밝기로 계속적으로 점등하여 주는것이 일정 시간의 소등이나 빛의 밝기에 변화를 주는 방법보다 성장효율이 우수 한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養鷄家들 에게는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인한 닭의 스트레스를 방지하는 의미에서 하루 23시간의 점등과 1시간 정도의 소등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점등시 전등의 밝기는 밝고 선명한것 보다는 약간 어둡고 희미한 불빛이 飼料效率의 向上이나 전력낭비 감소, 식우성방지등을 위해 효과적이라할것이다.

(C. J. Savory. 1977.

World's Poultry Sci. Jour. Vol33(4)
193)

家畜副産物の 再利用에 관한 研究

가축부산물의 이용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가축비의 이용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계분은 단위 동물에 이용될때는 소화율이 낮기 때문에 최근의 연구는 주로 반추동물에 대한 이용연구가 한창이다. 반추류의 계분의 이용율은 위내 미생물의 영향으로 약 75%가량에 이른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반추류에 대한 가축분의 이용성에 관한 연구가 치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서구에서는 계사의 깔짚의 이용에 관한 연구가 많은데 브로일러 깔짚의 이용율은 단백질 함량이 30%에 이를뿐 아니라 소화율이 70%에 이르러 영양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깔짚은 가공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미생물의 오염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물리적 혹은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다. 깔짚 싸이레지의 경우 제조과정 중에 산도가 4.0이하로 떨어져 불필요한 미생물을 살균할뿐 아니라 그 영양학적 가치를 높이고 기호성을 증진시키며, 취급을 편리하게 하여 사료로서의 이용가치가 매우 높다. 이밖에 계분 깔짚에 개미산이나 프로피온산을 4%까지 첨가하고 당밀을 20%첨가 하였더니 더욱 사료가치가 증진되고 기호성이 상승 하었다고 한다.

(R. F. Syrett. 1977. World's Poultry
Sci. Jour. Vol 33(4). 198)